수행자의 공심·원력 인생서 한국불교 현대사를 만나다

'살아있는 역사' 진불장 혜성대종사 화보집 발간


2016년 4월 20일 동화사에서 열린 대종사 품서식에서 대종사를 상징하는 불자를 봉청받는 혜성 스님.

거침없이 흐르는 역사라는 물줄기에서 개인의 삶은 아주 작은 일편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이 시대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시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을 우리는 '위인(偉人)'이라고 말한다.

올해 4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진불당 혜성대종사(이하 혜성 스님)는 현대 한국불교의 위인으로 꼽을 수 있는 원로 수행자 중 한 명이다.

혜성 스님은 1956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했고, 총무원 재정국장 · 사회부장 ·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1974년 팽성중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 청담학원을 설립했고, 중앙승가대학교가 김포로 이전하고 4년제 대학으로 인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교 인재 양성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1970년대 아직 불교 사회복지가 뿌리내리기 전 김기용 보살이 운영하던 보육원을 인수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보육원)으로 발전시킨 것도 혜성 스님이 보여준 원력의 산물 중 하나다.

스님의 일생에 아픔이 없던 것도 아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10.27 법난'으로 고문과 폭행, 도선사 주지 직에서 강제 퇴임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법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고문 후유증을 이겨내며 스님은 인재불사 · 불교사회복지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 중이다.

서울 성북구 도선사(주지 도서)와 진불당 혜성대종사 문도회가 발간한 〈화보로 본 진불장 혜성대종사- 인생 80년, 수행 60년〉은 이 같은 혜성 스님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보집이다.

화보집은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페이지 수만 600페이지에 달하고 삽입된 사진만 500여 장이 넘는다.

책의 구성은 △모서 △출가 △정진 △공심 △인재불사 △자비원력 △보현행원 △삼각산 △바라밀 등 총 9개 챕터로 이뤄져 있다. 사진과 더불어 관련 설명, 혜성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불교 안팎 인사들의 회고담도 눈길을 끈다.

'모서'는 스님의 출가 전 유년과 초 · 중 · 고등학교 시절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겼다. '출가'는 고교 졸업 후 상경 · 출가해 은사 청담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한 모습을, '정진'은 동국대 불교학부(석 · 박사 포함)와 실달승가학원, 도선사 삼각선원에서 정진한 사연과 사진을 게재했다.



혜성대종사 '傘壽' 맞아 출간
600페이지 · 500여 사진 통해
출가 · 정진 · 현재까지 담아

수행자 개인적 자서전 넘어서
조계종 · 도선사 역사 아는 사료
'종단 발전 기원' 원로 公心 감동

'공심'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재정국장과 중앙종회의원 등 공직을 맡았을 당시의 모습을, '인재불사'는 청담중고등학교 설립과 중앙승가대학장 역임했던 과정을, '자비원력'에는 1970년대 혜명보육원을 인수해 불교 사회복지활동에 초석을 놓은 사연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현행원'에는 세계 각국 불교와의 교류에 얽힌 사연과 대사회 활동상을, '삼각산'은 작은 암자에 불과했던 도선암을 현재의 도선사 사격으로 발전시켰던 과정으로 챕터를 구성했다.

마지막 챕터인 '바라밀'은 1980년 벌어진 '10.27법난'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이야기와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의 사과 담화를 비롯해 스님의 대종사 법계 품서와 현재 생활상을 담았다.

혜성 스님의 화보집 발간은 2014년 6월 문도들이 "스님의 일대기를 조명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시작했다. 문도와 재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간행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간행위원장으로는 도현 스님(하와이 무량사 주지) · 도호 스님(호국 지장사 주지) · 도서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이, 편집위원장은 도권 스님(도선사 교무국장)이 맡았다.

편집위원회는 2년 동안 스님의 사진 자료를 수집했고, 각계 인사 인터뷰 및 편집 작업에 들어갔다. 수집한 사진만 2000여 장이 넘었고, 이를 일일이 선별해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는 지난한 작업을 거쳤다.

편집위원장 도권 스님은 "올해 1월이 돼서야 구체적인 편집 방향이 정해졌다. 스님의 일대기를 잘 정리하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편집위원들이 2박 3일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기도 했다"면서 "당신의 화보집을 나와서 스님께 보였더니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셨다"고 말했다.

도선사와 문도회가 발간한 〈화보로 본 진불장 혜성대종사- 인생 80년, 수행 60년〉은 수행자 개인의 이력 정리를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의 일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의미도 강하다.

실제, 혜성 스님이 보여준 삶의 스펙트럼은 곧 현대 한국불교사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불교계 인재불사와 사회복지의 역사에서도 혜성 스님이 창립 · 운영한 청담학원과 혜명복지원이 가지는 위치가 높고, 한국불교의 아픈 상처인 10.27 법난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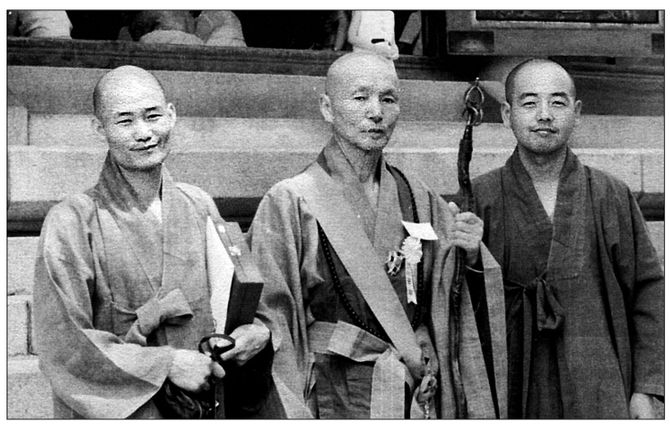
이에 대해 도권 스님은 "화보집은 작게는 은사 혜성 스님의 유년부터 현재까지의 전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넓게 본다면 조계종의 대사회활동 역사이고, 도선사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사료"라고 밝혔다.

화보집에 보여진 스님의 일생은 '공심(公心)'이다. 지금도 아침 8시면 자신이 설립한 복지관과 요양시설로 가서 미흡한 점을 살피는 모습에서 원력의 실천을 그대로 만난다. 이를 스스로 밝히는 스님의 회고는 자신의 다짐이자 후학을 향한 당부다.

"산수를 맞아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만난 선연과 악연이 모두 도반이었음을 느낀다. 악연도 나에게 인욕의 가르침을 주었으니 어찌 도반이 아니겠는가.〈중략〉남은 세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종단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 생에도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는 원력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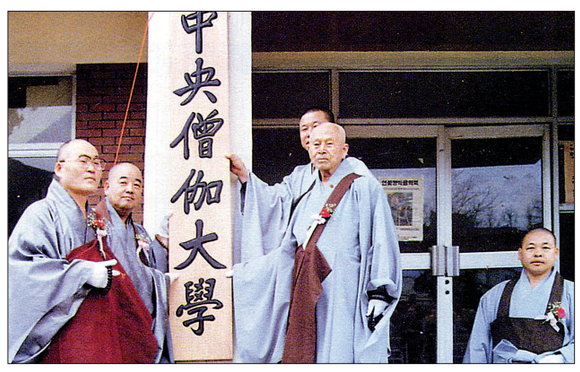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6년 4월 27일 대종사 가사를 수한 진불장 혜성 대종사가 불자를 들고, 휘장을 착용했다.


1970년 8월 15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은사 청담 스님(사진 가운데)과 함께한 혜성 스님(사진 오른쪽).


2015년 6월 청담중고등학교를 방문한 혜성 스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도선사 기념법회에서 불교 의례를 하는 혜성 스님과 주지 도서 스님의 모습.



1990년 3월 중앙승가대학이 대학 학력 인정 각종 학교로 인가 받은 후 가진 현판식 모습. 왼쪽부터 의현 스님, 혜성 스님, 석주 스님, 종서 스님.

